

# 2023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연수결과보고서



2023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



# 목차

## PART1 기관 및 사업소개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소개 | 05

2023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사업소개 | 06

## PART2 연수결과보고서

우수 국제 공연예술제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벤치마킹 | 09

포틀랜드, 너넨 되는데 왜 우린 안 돼? | 24

## 「2023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연수결과보고서

발행처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발행인	백옥선
총괄	사무처장 양효석
기획	정책사업팀 박현승, 서지현
디자인	김은총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 27 서울캐피탈빌딩 308호
전화	02-2055-1444, 1446
팩스	02-852-2814
홈페이지	www.ancf.or.kr
발행일	2023년 11월

본 보고서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ART1 기관 및 사업소개

05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소개

06

2023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사업소개

##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2012년 4월, '사람중심', '지역중심', '상생협력'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중심과 지역에 특화된 문화정책 및 사업 실현이라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기초단위 지역문화재단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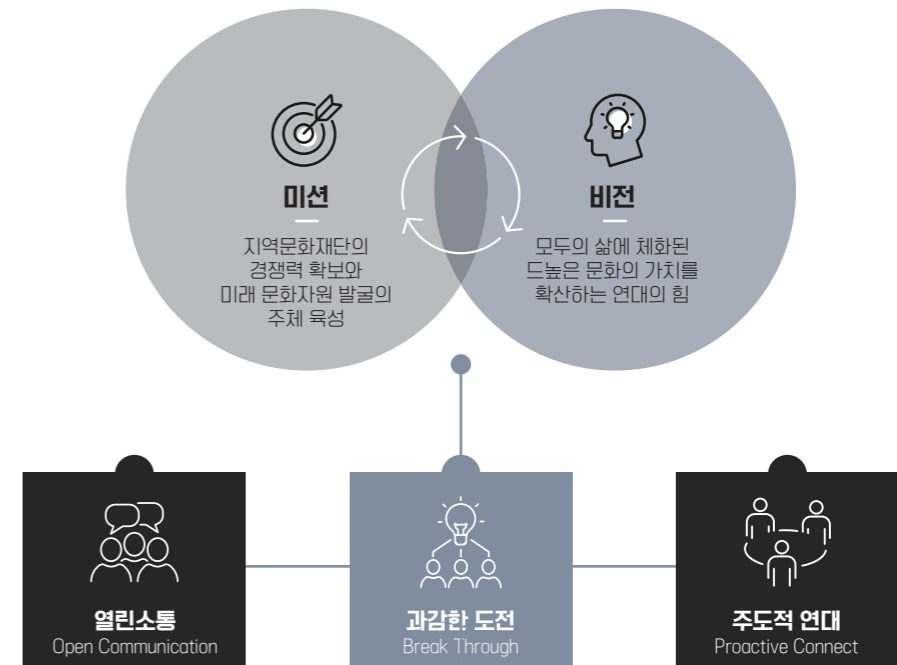
우리 연합회는 지역문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문화재단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문화·정책·행정·예술경영 분야 이론 지식 및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지역문화재단 간 연대와 소통의 장(場)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재단의 수요와 지역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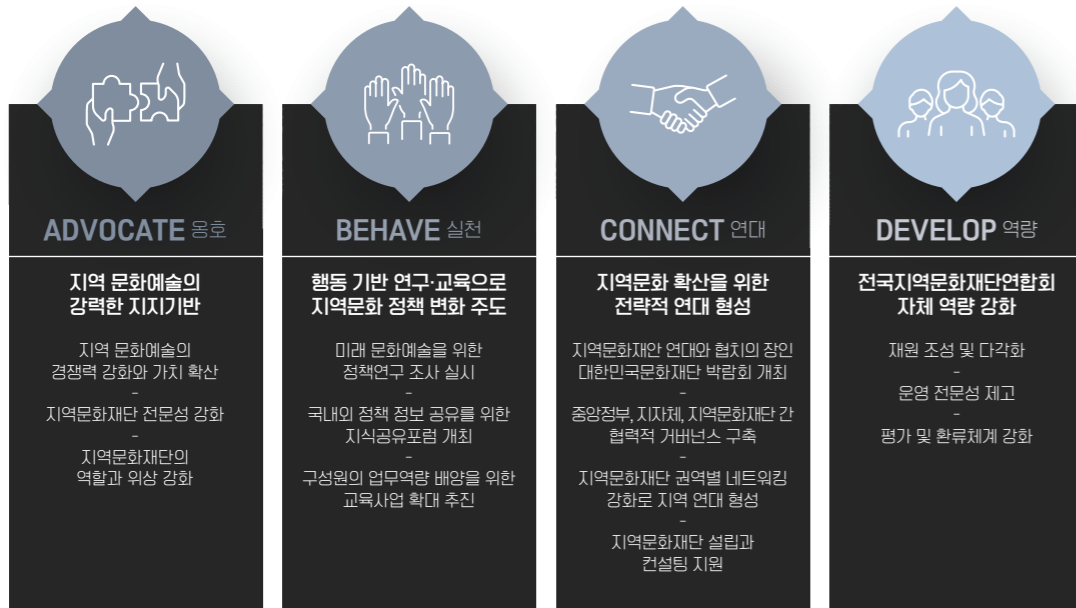
또한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열린소통', '과감한 도전', '주도적 연대'라는 새로운 핵심가치 아래 지역문화정책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문화융성의 중심기관인 지역문화재단과 지역의 일상적 삶 안에 문화적 삶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미션 및 비전(ANCF VISION 2028)



## 전략목표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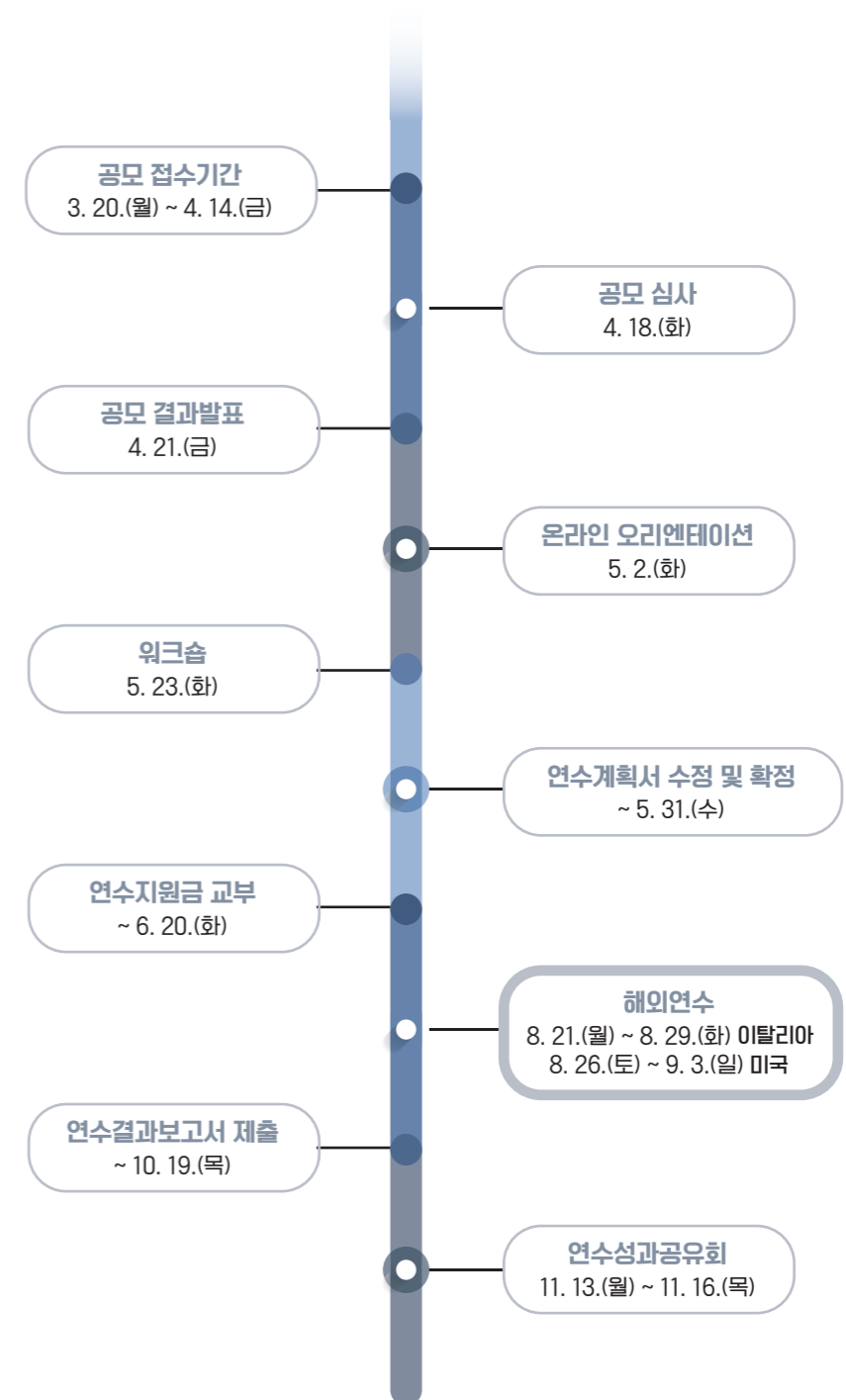
## <2023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사업이란?

- 사업내용** - 지역문화재단 종사자가 직접 해외연수팀을 조직하고 연수내용을 기획하여 해외 지역문화 현장 및 우수사례를 조사·탐방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 사업목적**
  - 지역문화 관련 현안 이슈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 종사자가 스스로 기획하는 창의적인 해외연수를 통해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재단 경쟁력 제고
  -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여, 지역문화 해외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운영방식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종사자의 전문능력 향상과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역량 강화
  - 해외 문화예술 현장 및 유관기관 방문, 사례조사 실시를 통해 지역문화 현안 과제 해결 모색
- 사업대상** - 기초단위 지역문화재단(전지연 정회원) 종사자

### 선정연수팀 : 2팀(총 6개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10명)

- 우수국제공연예술제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벤치마킹  
: 금정문화재단 김태울·장영식, 울주문화재단 김잔다·김강민, 부산진문화재단 조가현
- 포틀랜드, 너넨 되는데 왜 우린 안 돼?  
: 부천문화재단 윤소정·박정운, 포항문화재단 오유림·정수현, 수원문화재단 김예진

## <2023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사업 타임라인



## 우수 국제 공연예술제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벤치마킹

팀명	페라라원정대
대표자	김태울(금정문화재단/예술진흥팀)
팀원	장영식(금정문화재단/예술진흥팀)
팀원	김잔디(울주문화재단/생활문화팀)
팀원	조가현(부산진문화재단/경영지원팀)
팀원	김강민(울주문화재단/생활문화팀)

### 사업개요

사업명	2023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 -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사업기간	2023. 5. ~ 11.

### 연수개요

연수국가	이탈리아
연수기간	2023. 8. 21.(월) ~ 8. 29.(화) [7박 9일]
소요예산	15,000,000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부산·울산 3개 기초 문화재단 간 협력 기반 구축 및 공연예술 콘텐츠 질적 향상
- 해외 우수 공연예술제와 협력 관계 구축 및 축제 지속 가능 방안 벤치마킹
- 지역 문화재단 종사자 공연예술 분야 업무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마인드 제고
- 해외 우수 공연예술제 참여를 통한 국제 공연예술계에 대한 이해도 함양

## 연수기간

2023. 8. 21.(월) ~ 8. 29.(화) [7박 9일]

## 연수국가

### 이탈리아

- 로마(콜로세움, 바티칸 미술관, 성베드로성당)
- 피렌체(피렌체 두오모 성당, 조토의 종탑, 미켈란젤로 광장)
- 페라라(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축제장 일원, 에스텐스성, 페라라 대성당)
- 베로나(베로나 오페라 축제, 베로나 디 아레나)
- 베네치아(부라노섬, 무라노섬, 칸 미르코 광장, 베니스비엔날레)
- 밀라노(밀라노 두오모 광장, 스포르체스코성, 밀라노 대성당, 스칼라 극장)

## 연수인원 및 참여자별 담당업무

- 연수인원 : 5명 (총 3개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5명)
- 담당업무

구분	담당자	업무내용
대표자	김태울	· 연수프로그램 총괄 및 팀원 관리 · 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 결과보고 · BGreen 프로젝트 사례 조사 및 축제 재원조성 벤치마킹
팀원	장영식	·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실무(페라라버스커스페스티벌 ↔ 3개 문화재단)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사무국 소통 및 현장 섭외(이동, 식사 등) · 부산국제공연예술제 교류 공연단체 발굴 및 연락체계 구축
팀원	김잔디	· 참여 아티스트 조사 및 초청 관련 협의 및 통역(영어) · 생활문화 및 거리예술 관련 벤치마킹 조사 · 국내 아티스트 해외 진출 및 국제 교류를 위한 신규 사업 구상· 축제 사진 및 영상 촬영
팀원	조가현	· 축제를 통한 도시 브랜드화 관련 벤치마킹 조사· 버스커 공연 및 아트쇼 등 아티스트 조사 · 서면 거리예술 축제 및 문화도시 조성 관련 벤치마킹 · 축제 운영(공연예술 워크숍, 먹거리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 작성
팀원	김강민	· 축제 현장 공간 조성 및 공간 활용 무대 운영 관련 벤치마킹 조사 · 울주문화배달 연계 초청 아티스트 조사 · 울주동네축제·울주동네버스킹 관련 벤치마킹· 버스킹 및 행사운영 등 관련 분야 보고서 작성

## 연수일정

### ● 주요일정

구분	월/일(요일)	출발지 및 도착지	주요 일정	비고
1일차	8월 21일(월)	인천 → 도하 → 로마	· 01:30 인천국제공항 출발 → 하마드국제 공항 · 08:55 하마드국제공항 출발 → 로마공항 · 14:05 로마공항 도착 및 콜로세움, 판테온 답사 · 19:00 숙소(로마) 이동	
2일차	8월 22일(화)	로마 → 피렌체	· 07:00 바티칸 투어(성베드로성당, 바티칸 미술관) · 13:00 로마 → 피렌체 이동(차량 3시간 소요) · 16:00 피렌체 도착 및 숙소(피렌체) 이동 · 18:00 피렌체 두오모 성당, 조토의 종탑 답사 · 19:00 숙소(피렌체) 이동	
3일차	8월 23일(수)	피렌체 → 페라라	· 09:00 미켈란젤로 광장 답사 · 11:00 피렌체 출발 → 페라라(차량 4시간 소요) · 15:00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사무국 미팅 · 19:00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프로그램 및 해외 교류 공연 참관 · 24:00 숙소(페라라) 이동	
4일차	8월 24일(목)	페라라 ↔ 베로나	· 10:00 페라라시 소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답사 - 에스텐스성, 페라라 대성당 · 13:00 축제장 현장 조성 관련 주간 답사 · 15:00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프로그램 참관 · 20:00 베로나 오페라 축제 참관(베로나 아레나) · 24:00 숙소(페라라) 이동	베로나 오페라 축제 기간으로 일정 추가
5일차	8월 25일(금)	페라라 ↔ 베네치아	· 09:00 베네치아 일원(부라노섬, 무라노섬 답사) · 17:00 베니스비엔날레 답사 · 21:00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프로그램 참관 - BGreen 프로젝트 추진 사례 조사 · 24:00 숙소(페라라) 이동	
6일차	8월 26일(토)	페라라 일원	· 09:00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참여 예술가 네트워킹 · 13:00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관계자 인터뷰 및 1차 업무 협의 - BGreen 프로젝트, 재원조성, 홍보매체, 축제 운영 체계 등 · 17:00 페라라시 일원 답사 · 20:00 축제 프로그램 참관(먹거리, 마켓 등)	
7일차	8월 27일(일)	페라라 → 밀라노	· 10:00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2차 업무협의 - 축제 초청 및 업무협약 내용 협의 · 12:00 페라라 출발 → 밀라노(차량 4시간 소요) · 16:00 밀라노 대성당, 스칼라 극장 답사 · 22:00 숙소(밀라노) 이동	
8일차	8월 28일(월)	밀라노	· 10:00 두오모 광장 버스킹 프로그램 참관 및 밀라노 인근 답사 · 16:00 공항 이동(차량 1시간 소요) · 20:40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 출발 → 김해국제공항	우천으로 일정 축소
9일차	8월 29일(화)	부산	· 17:45 김해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 II. 세부연수내용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사무국 미팅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1차 미팅

- **추진일시** 2023. 8. 23.(수) 15:00~17:00
- **장소** 페라라시 아스트라 호텔 리셉션장
- **참여자** 총 8명
  - ▶ 페라라 원정대(5명): 장영식, 김잔디, 김태울, 조가현, 김강민
  - ▶ 페라라 버스커스 협회(3명): 레베카 보토니 회장, 페스티벌 프로그래머 2명
- **주요내용** 축제 재원조성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질의응답
- **인터뷰내용**
  - ▶ 재원조성
    - 축제의 재원은 지방정부와 민간 자본이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축제 예산의 부족한 부분은 음식 부스 판매 수익으로 충당
    - 매년 축제 예산 부족으로 축제를 지원해줄 수 있는 스폰서를 찾는 것이 축제의 장기 미션이라고 함
    - 협회 측 상주인력 4명과 축제 기간 총 40여명의 스텝이 함께 축제를 운영하는 듯 축제의 규모에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협회가 운영됨
  - ▶ 프로그램
    - 본 축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이탈리아 최초 친환경 프로젝트인 BGREEN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음
    - 프로젝트 내용은 분리수거 철저, 일회용품 사용 지양, 환경 보호에 관한 문구를 축제장 곳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축제와 크게 차별성은 없었음
    - 아티스트 선정 방식은 공모 방식이 아닌 주로 유럽 나라를 배경으로 오디션과 스카우트 형태로 선정한다고 함
  - ▶ 축제 지속 가능 요인
    - 본 축제가 36년 동안 지속 가능했던 요인은 최초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가족 비즈니스에서 시작된 것에 있다고 함
    -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본 축제가 페라라 지역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방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지방비가 매칭 되어 매년 축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속될 수 있었다고 함

· **관련사진**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1차 미팅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2차 미팅

- **추진일시** 2023. 8. 27.(일) 09:00~10:00
- **장소**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사무국
- **참여자** 총 7명
  - ▶ 페라라 원정대(5명): 장영식, 김잔디, 김태울, 조가현, 김강민
  - ▶ 페라라 버스커스 협회(2명): 스테파노 보토니 집행위원장, 마리아 루이사 부집행위원장
- **주요내용** 이탈리아 공연단체 섭외 및 일정에 관한 조율
- **미팅내용**
  - ▶ 1차 협의 시 이탈리아 및 한국의 지속적 교류에 대해서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측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에 따라 협회 위원장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함
  - ▶ 2023년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에 참여한 총 3개 공연 단체를 금정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부산국제공연예술제에 초청하기로 했으며,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금정문화재단과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간의 업무협약을 진행하기로 함
  - ▶ 사전에 준비한 업무협약서 내용에 대해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측에서 승인하였으며, 매년 교류 공연 추진, 양 축제의 홍보 협력, 양국의 지역문화와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이 협약의 주요 골자임
  -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2명과 공연 단체 3개팀(총 5명)이 부산국제공연예술제 개최 일정에 맞추어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방문하기로 함

· **관련사진**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2차 미팅



▲ 사무국 단체사진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참관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축제 답사

- **추진일시** 2023. 8. 23.(수)~8. 27.(일) 19:00~24:00
- **장소** 페라라 센트로 스토리코 일원(축제장 일원)
- **참여자** 총 5명(장영식, 김잔디, 김태울, 조가현, 김강민)
- **주요내용** 공연 프로그램, 먹거리 프로그램, 비그린 프로젝트, 기타 부대 프로그램 답사
- **세부내용**
  - ▶ **공연예술 프로그램**
    - 8월 23일(수)을 시작으로 8월 27일(일)까지 총 5일간 페라라 센트로 스토리코 일원에서 축제가 개최됨. 본 축제는 주중에 진행되는 축제가 아닌 주로 야간 시간에 운영되는 축제로 올해 총 34팀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으며, 7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감
    - 주로 음악 장르의 공연예술단체가 주를 이루었으며, 퍼포먼스, 서커스 등 너비별 형태 공연도 진행되

- 있음. 관객 참여형태는 공연 중 아티스트를 보조하는 역할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도 진행됨. 특히 타로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도 아티스트의 일원으로 대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저녁 시간 도심지에서 개최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민원이 전혀 없었으며, 붐비는 관객들로 인해 평일이 아닌 주말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페라라 일원이 축제 열기로 가득 참
- 대체로 공연의 독창성과 예술성, 작품의 의미 보다는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아티스트들의 실력이 우선시 되어 공연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음
- 개막 및 폐막 행사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공연 운영 시간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아티스트들이 자체적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또한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에게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체류에 필요한 사항(숙박, 식사 등)만 제공하고 있음
- 공연은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위해 필요한 음향 장비를 페스티벌 측에서 대여형태로 제공하고, 공연 시간 전에 아티스트가 스스로 공연 장비를 대여하며, 공연 후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별도의 전담 운영 인력이 없어도 대여와 반납이 자율적으로 잘 진행되었음
- 대여 시스템과 함께 물품 보관소도 함께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음



▲ 관객 참여형 공연



▲ 이동형 음악 공연

▶ 먹거리 프로그램

- 먹거리 프로그램은 광장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크기는 푸드트럭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로 구성되었으며, 맥주와 간단한 이탈리아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됨
- 음식의 가격은 주변 상권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적정가격으로, 음료와 주류는 협회 사무국에서 판매했으며, 음식은 외부 푸드 트럭이 판매를 맡음
- 곳곳에 분리수거 구역을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 졌으며, 주기적으로 환경정비 인력의 관리로 주변이 정돈된 상태였음
- 행사장 내 운영 스텝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내 질서유지와 청결 관리가 잘 되었음



▲ 먹거리 프로그램 운영 모습

▶ 비그린 프로젝트

- 비그린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최초의 환경 보호 이벤트로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 주요 실천 사항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기 위한 급수대 운영, 환경 관련 캠페인의 일환인 굿즈 배포, 환경 워크숍 체험 부스 운영 등 있었음
- 가장 특이한 점은 축제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축제 홈페이지)을 통해서 진행하여, 행사장 내 홍보물(옥외 광고물)을 최소화하여 행사장 내에서 인쇄물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최소한의 리플렛을 제작하여 1유로에 판매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기부를 진행한다고 함



▲ 무료 급수대



▲ 환경보호를 위한 배포용 굿즈

▶ 기타 사항

- 축제 기간 동안 거리 곳곳에 무료 공공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의 축제장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화장실과 다르게 화장실로 안보일 정도로 디자인된 부스가 설치되어있었음
- 우리나라 축제의 경우 안전, 통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운영인력을 배치하는 반면 본 축제는 축제장 전반(공연장소, 먹거리촌 등)에 운영 스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나라의 경우 축제장 현장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본 축제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이 부족해 보였음. 특히 차량 통제와 관련한 현수막이나 안내판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잘 되었는데, 협회 측에 문의 결과 축제 개최 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수차례 홍보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함
- 거리를 배경으로 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거리예술축제는 최소한의 무대가 설치되는데 본 축제는 오직 거리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축제로 무대 설치가 전혀 없음
-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최 측이 축제를 이끌어가는 형태인 반면 본 축제는 아티스트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아티스트가 주축이 되는 축제로 축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크게 달라보였음



▲ 축제장 모바일 화장실



▲ 아티스트 전용 리셉션장



## 기타 이탈리아 문화적 장소 답사

### 로마 답사

- **추진일자** 2023. 8. 21.(월)~8. 22.(화)
- **장소** 콜로세움, 바티칸 미술관, 성베드로성당 등
- **참여자** 총 5명(장영식, 김잔디, 김태울, 조가현, 김강민)
- **주요내용** 콜로세움 공간 답사, 바티칸 투어 참여
- **답사내용**
  - ▶ 로마 공항으로 입국 후 로마 인근의 역사 문화적 장소를 답사하기 위해 콜로세움을 방문함 늦은 오후 시간대라 콜로세움 내부를 관람하진 못했지만 콜로세움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경이로웠음
  - ▶ 콜로세움은 6시까지 관람이 가능했으며, 6시 이후에는 콜로세움 인근 경관 조명이 켜지면서 포토존이 조성됨
  - ▶ 다음 날 아침 일찍 바티칸 투어(4시간 코스)를 진행하였음 술방울 정원 → 팔각정원 → 동물의 방 → 뮤즈의 방 → 그리스 십자가의 방 → 촛대의 방 등 공간을 투어하며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미술관 운영 시스템을 확인하였음
  - ▶ 또한 시스티나 소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 및 산피에트로 광장 등을 방문하며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라파엘로 '아테네학당' 등 작품을 감상하였음
  - ▶ 특히 천장에 조성되어 있는 작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된 작품으로 보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예술적이었음
  - ▶ 이탈리아 내에도 공적인 문화예술 기관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관광지는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어 있음

#### · 관련사진



▲ 콜로세움



▲ 바티칸 광장 단체 사진

- ▶ 공간 내부는 누구나 관람이 가능했으며, 스페인의 마드리드 청소년 합창단이 초청되어 공연을 진행하고 있었음
- ▶ 다음날 아침 페라라로 이동 중 미켈란젤로 광장을 방문하였음. 미켈란젤로 광장의 중앙에는 미켈란젤로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여 1871년 세워진 다비드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광장에서는 전날 밤 방문했던 피렌체 시내가 한눈에 보였음

#### · 관련사진



▲ 미켈란젤로 광장서 본 피렌체 전경



▲ 미켈란젤로 광장 다비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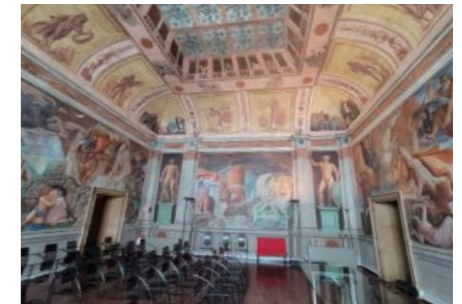
### 페라라 답사

- **추진일자** 2023. 8. 24.(목) 09:00~15:00
- **장소** 에스텐스성, 페라라 대성당
- **참여자** 총 5명(장영식, 김잔디, 김태울, 조가현, 김강민)
- **주요내용** 페라라시가 보유한 세계문화유산 에스텐스성, 페라라 대성당 답사
- **답사내용**
  - ▶ 페라라는 유럽 최초의 계획도시이며, 페라라에 체류 두 번째 날 아침 일찍 페라라가 보유한 세계문화유산인 에스텐스성을 방문하였음
  - ▶ 에스텐스성은 르네상스 시대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오늘날 까지 해져되어 있어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건축물임
  - ▶ 에스텐스성 내부에는 기념관이 있어 성과 에스텐스 가문의 역사, 페라라 역사 등을 쉽게 알 수 있었음. 또한 지역 예술가 특별 전시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음
  - ▶ 에스텐스성 방문 후 인근에 있는 페라라 대성당을 방문했으며, 대성당은 지진으로 인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지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보수된 과정도 함께 전시하고 있어 이색적으로 느껴졌음

#### · 관련사진



▲ 에스텐스성서 본 페라라 전경



▲ 페라라 대성당 내부

### 피렌체 답사

- **추진일자** 2023. 8. 22.(화)~8. 23.(수)
- **장소** 피렌체 두오모 성당, 조토의 종탑, 미켈란젤로 광장
- **참여자** 총 5명(장영식, 김잔디, 김태울, 조가현, 김강민)
- **주요내용** 피렌체 도심지에 위치한 공간 답사 및 미켈란젤로 광장 방문
- **답사내용**
  - ▶ 자동차 이용 기준 로마에서 페라라까지 약 8시간이 소요되어 페라라로 향하는 과정에 피렌체에 들러 1일간 체류함
  - ▶ 피렌체에 아간에 도착하여 피렌체 도심지를 방문하면서 피렌체 대성당, 조토의 종탑 등을 답사함

### 베로나 답사

- **추진일자** 2023. 8. 24.(목) 17:00~23:00
- **장소** 베로나 디 아레나
- **참여자** 총 5명(장영식, 김잔디, 김태울, 조가현, 김강민)
- **주요내용** 베로나 오페라 축제 참관 및 오페라 '카르멘' 관람
- **답사내용**
  - ▶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페라라 인근 지역인 베로나에서 오페라 축제가 개최되어 오페라 '카르멘'을 관람하기 위해 베로나 디 아레나를 방문함
  - ▶ 베로나 오페라 축제는 1913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6월~9월에 개최되는 세계적인 축제로 오페라 카르멘은 러닝타임이 총 4시간이었음
  - ▶ 고대 로마 유적인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열리는 축제라 이색적이었으며, 아레나 디 베로나는 약 30,000명을 수용하는 콜로세움 형태의 아레나임
  - ▶ 야외 공연장의 규모와 역사적인 상징이 인상적이었으며, 2026년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함
  - ▶ 공연장 입장 시에는 모든 플라스틱 물품과 소음을 유발하는 휴대용 선풍기 등을 수거하는 등 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가 철저했음

#### · 관련사진



▲ 공연장 내부



▲ 공연장 외부

### 베네치아 답사

- **추진일자** 2023. 8. 25.(금) 10:00~23:00
- **장소** 부라노섬, 무라노섬, 칸 미르코 광장, 베니스비엔날레
- **참여자** 총 5명(장영식, 김잔디, 김태울, 조가현, 김강민)
- **주요내용** 베네치아 주요섬 답사 및 베니스비엔날레 참관
- **답사내용**
  - ▶ 베네치아는 페라라 인근 지역으로 베니스비엔날레를 참관하기 위해 방문하였음
  - ▶ 베니스비엔날레 축제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섬을 거쳐 가야 했으며, 거쳐 가는 도중 부라노섬과 무라노섬에 들렀음
  - ▶ 섬들은 주로 작은 상점들과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었음
  - ▶ 베네치아는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상버스를 통해 이동이 가능했음
  - ▶ 베니스비엔날레는 일본, 독일 등 다양한 나라가 운영하는 전시관이 있었으며, 한국관에서는 인천의 한 지역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음
  - ▶ 한국관은 타 국가관과 비교했을 때 축제장 내 외진 곳에 있어 찾기가 힘들었으며, 규모도 작은 편에 속해서 다소 아쉬웠음

#### · 관련사진



▲ 베네치아 부라노섬 단체사진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단체사진

### 밀라노 답사

- **추진일자** 2023. 8. 27.(일)~8. 28.(월)
- **장소** 밀라노 두오모 광장, 스포르체스코성, 밀라노 대성당, 스칼라 극장 등
- **참여자** 총 5명(장영식, 김잔디, 김태울, 조가현, 김강민)
- **주요내용** 밀라노 두오모 광장, 대성당 등 밀라노 주요 명소 답사
- **답사내용**
  - ▶ 한국으로 귀국을 위해서 밀라노에서 1일간 체류하면서 밀라노 주요 장소를 답사함
  - ▶ 밀라노 대성당과 두오모 광장, 스포르체스코성 미술관을 방문하였으며, 밀라노 두오모 광장 주변은 주로 쇼핑몰과 상점으로 구성되어있었음
  - ▶ 밀라노 대성당 및 두오모 광장은 밀라노 최대 중심지에 위치해있었음
  - ▶ 밀라노 대성당은 화려한 고딕 양식으로 약 600년에 걸쳐 완공되었다고 함
  - ▶ 테라스에 올라가는 티켓과 내부 방문용 티켓,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 이용에 따라 입장권 금액이 상이하여 특이했음
  - ▶ 스칼라 극장은 방문일 휴관하여 내부를 관람하진 못했으며, 극장 외부에는 공연에 대한 포스터가 게시되어져 있었음

#### · 관련사진



▲ 밀라노 대성당 외부 단체 사진



▲ 스칼라 극장 외부

### III. 연수효과 및 현업활용계획

#### 금정문화재단 (장영식, 김태울)

- **담당업무:** 공연예술 사업 및 축제 사업 운영
- **연수효과**
  - 다양한 형태의 거리예술 공연을 접하면서 공연예술을 보는 시각이 확대
  - 우리나라 축제를 접하면서 자리 잡은 축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
  - 해외 우수 공연예술 축제 관계자와 연락망 구축 및 협력의 초석 마련
- **현업활용계획**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와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 추진 완료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보유 우수 공연예술단체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제 초청 ※ 추진 완료
  - 2024년 부산국제공연예술제 개최 시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의 친환경 프로젝트 실천 및 축제 공동 협력 홍보 실시
  - 부산국제공연예술제 아티스트 선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형태(오디션, 스카우트 등) 도입
  - 이탈리아 축제와 교류 관계 구축을 초석으로 해외 여러 나라의 우수 공연예술제와 협력 파트너십 구축
  - 본 연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수 관련 프로그램 신규(부산국제공연예술제 사업 내 편성)

#### 울주문화재단 (김잔디, 김강민)

- **담당업무:** 공연예술 사업 및 축제 사업 운영
- **연수효과**
  - 울주 지역과 유사한 규모의 도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 새로운 장르의 공연 예술을 접하면서 공연예술 사업의 다양화 추진
  - 지역의 역사 자원과 지역의 정체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의 폭 확장
  - 타 지역문화재단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
  - 관객의 입장에서 축제를 참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관객 니즈를 파악
- **현업활용계획**
  - 내년도 울주 공연배달 사업의 참여 예술단체 선정 시 보다 다양한 공연예술 장르의 예술단체 선정
  - 금정문화재단 및 부산진문화재단과 유사 사업 협력(지역 예술단체 교류 공연, 해외 공연예술 단체 공동 초청 등)
  - 울주공연배달, 울주 옹기축제 공연 프로그램 등 관객의 특성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 기획
  - 버스킹 형태의 공연 진행 시 최소한의 음향장비 사용을 통한 시스템 소요 예산 절감 및 예술단체 참여 기회 확대

#### 부산진문화재단 (조가현)

- **담당업무:** 자원조성, 계약 및 예산관리
- **연수효과**
  - 비그린 프로젝트 프로그램 참관을 통한 ESG 실천 구체적인 사례 벤치마킹
  - 거리 공연예술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거리 공연 형태 발굴
  - 재단 사업의 새로운 자원 조성 모델 발굴 노력
  - 이탈리아의 여러 문화적 명소를 답사함으로써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안목이 확대 및 고정 관념 탈피
- **현업활용계획**
  - 축제 프로그램 운영 시 비그린 프로젝트 프로그램 도입(환경 보호 이벤트)을 통한 ESG 경영 실천
  - 재단 사업 추진 시 지역 향토 기업 후원을 통한 지역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 유도
  - 2024년도 거리예술 공연 프로그램 진행시 금정문화재단 및 울주문화재단과 협력(아티스트 공동 초청 및 신규 협력 프로그램 구상 등) 추진

### IV. 주요사진

#### 연수사진



▲ 금정구 예술단체 공연 후 관객과 단체 사진



▲ 오페라 카르멘 공연 중 무대 사진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참여 아티스트 단체 사진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공연 사진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단체 사진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공연 사진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단체 사진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공연 사진

## V. 기타자료

### 기타자료 및 참고사항

#### 금정문화재단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업무협약 체결

##### ● 추진개요

- **건명** 금정문화재단과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일시** 2023. 9. 21.(목) 17:00
- **장소** 금정구청 3층 접견실
- **참석자** 총 7명
  - ▶ 금정문화재단(5명)  
김재윤 이사장, 이홍길 상임이사, 이동용 경영지원팀장, 장영식 예술진흥팀장, 김태울 예술진흥팀 대리
  -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협회(2명)  
스테파노 보토니 위원장, 마리아 엔리체타 부회장

##### ● 협약내용

- 상호 협력에 따른 공연예술제 지속 발전 방안 모색
- 양 기관이 보유한 우수 공연예술단체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 양 기관이 주최하는 축제에 대한 홍보 협력
- 기타 양국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

##### ● 관련사진



▲ 업무 협약식 사진

##### ● 관련 보도자료

연번	언론사	보도일자	관련 링크
1	부산일보	2023.09.22.	<a href="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92710111835165">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92710111835165</a>
2	국제뉴스	2023.09.22.	<a href="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6391">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6391</a>
3	뉴스포털1	2023.09.22.	<a href="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753">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753</a>

#### 부산국제공연예술제 ↔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교류 공연 추진

##### ● 주요내용

- 부산국제공연예술제와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이 상호 교류를 위한 교류 공연을 추진함
- 부산국제공연예술제를 개최하는 금정문화재단이 축제의 일환으로 해외교류 공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금정구 지역 아티스트 1개 팀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공연단체는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에 공연단으로 참여함
- 본 해외 연수로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방문 시 부산국제공연예술제에 초청하고자 하는 3개 단체와 이탈리아 현지에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제에 참여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축제 3일 기간 동안 3개의 공연 팀이 축제 참여

##### ● 추진개요

구분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공연	부산국제공연예술제 공연
추진일자	2023. 8. 23.(수)~8. 27.(일) 총 5회	2023. 9. 22.(금)~9. 24.(일) 총 11회
장소	페라라 센트로 스토리코 일원	부산시 금정구 스포원 파크 일원
참여 아티스트	1개팀(4명) 국악그룹 이별(국악연주)	3개팀(5명) 드림보 드러머(페폼 활동 드럼 연주) 파이로바기(파이어 퍼포먼스) 스트라데아페르테(파이프 악기 연주)

##### ● 관련사진



▲ 국악 그룹 이별



▲ 드림보 드러머



▲ 파이로바기



▲ 스트라데아페르테

##### ● 관련 보도자료

연번	언론사	보도일자	관련 링크
1	국제뉴스	2023.10.11.	<a href="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7551">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7551</a>
2	부산일보	2023.10.11.	<a href="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1109203845533">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1109203845533</a>

# 포틀랜드, 너넨 되는데 왜 우린 안 돼?

- 팀명 죽포담(죽기 전 포틀랜드에 꼭 가고 싶은 담당자들)
- 대표자 윤소정(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부)
- 팀원 박정윤(부천문화재단/홍보부)
- 팀원 오유림(포항문화재단/경영지원팀)
- 팀원 정수현(포항문화재단/문화도시센터)
- 팀원 김예진(수원문화재단/문화도시센터)

## 사업개요

- 사업명 2023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 -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 사업기간 2023. 5. ~ 11.

## 연수개요

- 연수국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 연수기간 2023. 8. 26.(토) ~ 9. 3.(일) [7박 9일]
- 소요예산 15,000,000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문화적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재생) 등 고관여 사업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적 동기 파악하여 신규 참여자 유입 위한 홍보에 활용
- 시민합의구조를 위한 기관의 제도적 지원 및 도시 행정 프로세스 탐구
- 담당자 간 네트워킹 및 교류를 통해 시민참여사업 발전 방향 모색

### 연수기간

2023. 8. 26.(토) ~ 9. 3.(일) [7박9일]

### 연수국가

####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 Hello from Portland, Madehere PDX, Powell's City Books
- ADX makerspace, Scrap PDX
- Portland State University, NWNW Coalition
- Portland Farmers Market - Shemanski Park, Portland Art Museum
- Multnomah Athletic Club, Cartopia, Alberta Street
- IPRC(The Independent Publishing Resource Center)

### 연수인원 및 참여자별 담당업무

- 연수인원 : 5명 (총 3개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5명)
- 담당업무

구분	담당자	업무내용
대표자	윤소정	- E나라도움 집행 및 정산 - 총무(정) : 각종 예약 및 결제 담당
팀원	박정윤	- 공모서류 작성 및 취합 - 연수보고서 작성(정) - 총무(부)
팀원	오유림	- 발표- 발표자료 제작(정) - 연수보고서 작성(부)
팀원	정수현	- 인터뷰이 섭외 및 일정 관리(정) - 인터뷰 내용 정리 및 노션 업로드(부) - 발표자료 제작(부)
팀원	김예진	- 인터뷰 내용 정리 및 노션 업로드(정) - 사진/영상 촬영 - 인터뷰이 섭외 및 일정 관리(부)

## 연수일정

### ● 주요일정

구분	월/일(요일)	출발지 및 도착지	주요 일정
1일차	8.26.(토)	· Portland Airport PDX 공항	입국
2일차	8.27.(일)	· Ace Hotel lobby, Stumptown Coffee Roasters · Hello from Portland, Madehere PDX, Powell's City Books	포틀랜드 로컬 브랜드숍 탐방
3일차	8.28.(월)	· ADX makerspace, Scrap PDX · Coava Coffee Roasters	아티스트 공유 작업실, 재활용숍 탐방
4일차	8.29.(화)	· Portland State University · NWNW Coalition	Paul 교수님, Darlene 인터뷰
5일차	8.30.(수)	· Portland Farmers Market - Shemanski Park · Portland Art Museum	포틀랜드 파머스 마켓, 아트 뮤지엄 탐방
6일차	8.31.(목)	· Multnomah Athletic Club · Cartopia, Alberta Street	Vadim, Stan 인터뷰
7일차	9.1.(금)	· IPRC(The Independent Publishing Resource Center)	독립출판지원센터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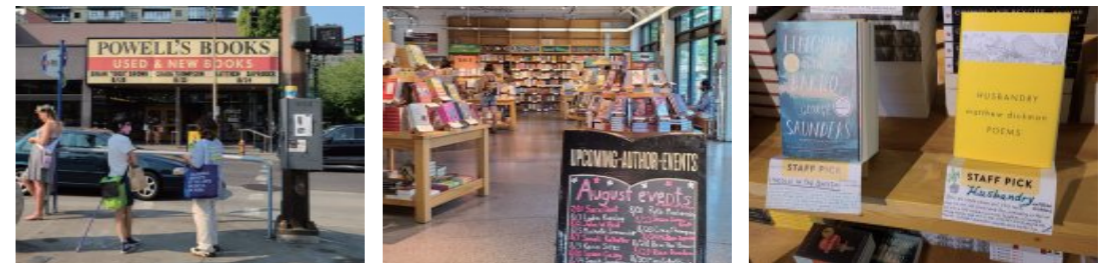
## II. 세부연수내용

### 2023년 8월 27일 일요일 10:00 ~ 18:00

- **장소** Ace Hotel Lobby 커뮤니티 공간, 로컬 브랜드 장소(Hello from Portland, Madehere PDX, Stumptown Coffee Roasters, Powell's City of Books 등)
- **주요내용** 포틀랜드 주요 커뮤니티 공간 및 로컬 브랜드 명소 방문
  - 포틀랜드는 독립적인 소상공인 산업(small business)의 비중이 높은 도시
  - **Ace Hotel Lobby**는 펄 지구에 자리한 호텔로, 로비를 크리에이터 및 지역민에게 개방하여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 같은 층에는 포틀랜드의 로컬 커피 브랜드인 Stumptown Coffee Roasters가 있음.
  - **Powell's City of Books**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독립서점임.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음. 직원의 추천을 받은 책 아래엔 손글씨로 적힌 추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음.
  - **Madehere PDX, Hello from Portland**는 포틀랜드 기념품 가게임. 특히 Madehere PDX는 메이커 협동조합 포틀랜드 메이드 컬렉티브(Portland Made Collective)에서 지원하는 가게로, 포틀랜드에서 생산된 음식부터 의류, 수공예품 등 다양한 로컬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포틀랜드 로컬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



(왼쪽부터) 에이스호텔 외관, 에이스호텔 로비, 같은 층에 위치한 스템프타운 커피



파웰스 북스 전경 및 내부



(왼쪽부터) 할로우 포틀랜드 외관, MadeherePDX에서 판매 중인 로컬 제품들. 일반 마켓에서도, 포틀랜드에서 생산된 제품은 빨간 LOCAL 딱지를 붙여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10:00 ~ 18:00

- 장소 ADX makerspace, NW 23번가 로컬브랜드 숍(Scrap PDX 등)
- 주요내용 크리에이터 공유오피스 및 로컬브랜드 숍 방문

#### ○ ADX(Art Design Xchange) makerspace 답사

- “Building a community of thinkers and makers!” 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ADX.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유 작업실임. Wood, Metal, Print, Jewelry 등 4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ADX에 입주해있음. 포틀랜드 메이드 컬렉티브(Portland Made Collective)와 협업하여 포틀랜드 로컬 메이커들을 지원함.
-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유주방이 있으며, 캘린더에 각자의 일정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의 일정도 확인할 수 있음.



ADX는 입주인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치가 곳곳에 있다. 우리를 안내해준 Blue도 ADX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났다고 했다.



ADX의 캐치프레이즈. ADX의 매니저 Blue는 우리에게 공간 곳곳을 소개시켜주었다.

#### ○ SCRAP PDX 답사

- 환경을 생각하는 포틀랜드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던 잡동사니 가게 SCRAP PDX. 병뚜껑, 몽당연필, 오래된 필름사진 등 누군가에겐 쉽게 쓰레기로 인식되는 물건들을 팔고 있었음. 재활용품 워크숍을 진행하는 공간도 있었음.



SCRAP PDX 외부 및 내부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09:00 ~ 18:00

- 장소 포틀랜드 주립대학, NWNW Coalition
- 주요내용 포틀랜드 주립대학 이정희, Paul Leistner 교수 인터뷰  
NWNW Darlene Garrett Executive Director 인터뷰

#### ○ 포틀랜드 주립대학(Portland State University) 방문

- 이정희 교수님, Paul Leistner 교수님 인터뷰
- 포틀랜드의 NA(Neighborhood Association) 활동의 역사와 발전과정, 미국 사회활동 제도의 변천사,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 한국 시민협업체 활동과의 차이점에 대해 주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보조금 지원의 방식, 성과평가 방법, 지속적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등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짐.



(왼쪽부터) 담장 없이 도시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있던 PSU 캠퍼스, 교수님을 만나기 전 회의, Paul Leistner 교수님과의 인터뷰.

#### ○ NWNW Coalition 방문 : Darlene Urban Garrett Executive Director 인터뷰

- NWNW는 몇몇 NA가 모여있는 지역연합으로, 비영리단체임. 실제 시민협업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눔.
- 연방정부와 시 보조금의 지원과, 지원에 대한 관리, 성과평가, 협업체 구성원들 간의 갈등 해결 방식 등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 등을 통해 한국 시민협업체 활동과의 운영상 차이점, 국내 도입할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 생각해 봄.



NWNW에서 Darlene을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Paul 교수님도 함께해주셨다.

###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10:00 ~ 18:00

· **장소** Portland Farmers Market-Shemanski Park, 로컬 브랜드 숍(Case Study Coffee Roasters, Crafty Wonderland), Portland Art Museum 등

· **주요내용** 지역 조직이 협업으로 로컬 푸드 생태계를 바꾼 것으로 유명한 포틀랜드 지역 파머스 마켓과 지역 박물관을 방문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참여

#### ○ Portland Farmers Market-Shemanski Park 방문

- 포틀랜드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Farm-to-Table' 문화가 자리잡혀있음. 그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Farmers Market'임. 가격이 조금 더 비싸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어 로컬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음.



(왼쪽부터) 파머스마켓 입구에 서있던 입간판엔 모든 돈은 지역 농부와 생산자에게 돌아간다는 문구가 적혀있음. 평화로웠던 파머스 마켓 풍경. 평일 오후였지만 꽤 많은 사람이 파머스 마켓을 방문했다.

#### ○ Portland Art Museum 관람

- 미국 서부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이면서 유럽 컬렉션과 아프리카 원주민 작품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 마침 영화감독 '기예르모 델 토로'의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음.



(왼쪽부터) 기예르모 델 토로 전시 전경, 포틀랜드 아트 뮤지엄 작품들.



Crafty Wonderland에서는 이들의 작가를 소개하는 공간을 갖추고 있었음. 또한 포틀랜드 내의 작은 숍들을 소개하는 리플렛도 비치하고 있었음. 리플렛엔 지역별로 분류된 작은 숍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10:00 ~ 21:00

· **장소** Multnomah Athletic Club, 1075 Northwest Northup St., Tomorrow Records, Straight Away, 푸드트럭 존(Cartopia), Alberta Art District 등

· **주요내용** 포틀랜드 NA(Neighborhood Association) 대표 2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자치활동의 모습과 발전 방향 등에 관해 논의

#### ○ Goose Hollow District NA - Vadim Mozyrsky 대표 미팅

- Goose Hollow District는 특히 Healthcare 시스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민자치활동을 하는 포틀랜드 내 지역임.

- NA 활동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지원동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에서는 지원금을 쥐도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는데, 포틀랜드에서는 개인이 회비를 내면서도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NA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 그리고 멤버들 간의 갈등이 생길 땐 어떻게 조율하는지, 지원금의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며, 정산과정은 어떠한지? 포틀랜드 NA 활동 동기, 펀딩모금이나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는 홍보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의 상황과 비교, 차이점 파악,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수 있었음.

#### ○ Pearl District NA - Stan Penkin 대표 미팅

- Pearl District 는 포틀랜드 NA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지역으로, 도시 내 Homelessness, Public Safety 등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

- NA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멤버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체활동의 목표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삼음.

- 도시 거리 안전을 위해 Humanity service를 제공하며,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파견 보내주는 일을 하기도 함.

- 포틀랜드에서도 젊은 활동가가 적어서, 이들을 어떻게 유입시킬지 Stan도 고민이라고 함.

- 한국에서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인 지원금으로 주고 있는데, 장기적인 방안이 아닌 것 같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한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음.



(왼쪽부터) Vadim Mozyrsky와의 인터뷰, Stan Penkin과의 인터뷰.



○ 푸트트럭 존(Cartopia)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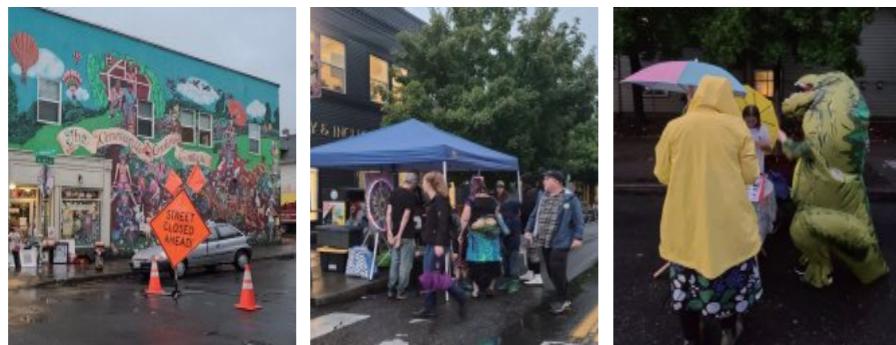
- 포틀랜드의 푸트트럭은 도시환경적으로 공공 디자인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Cartopia 방문.
- 도심 주차장 가장자리로 푸트트럭을 배치하고,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천막형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축제장이나 길거리에 배치된 한국과 대조적으로 푸트트럭 존이 따로 마련되어 로컬 레스토랑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Cartopia 전경

○ Alberta Art District 'Last Thursday Alberta Street' 방문

- 예술가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Alberta Art District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거리 축제가 펼쳐짐. 비가 와도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진행. 어린아이부터 예술인까지 누구나 부스 참여 가능.
- 주택가에서 진행되는 축제이지만, 밤 9시가 넘어도 민원이 없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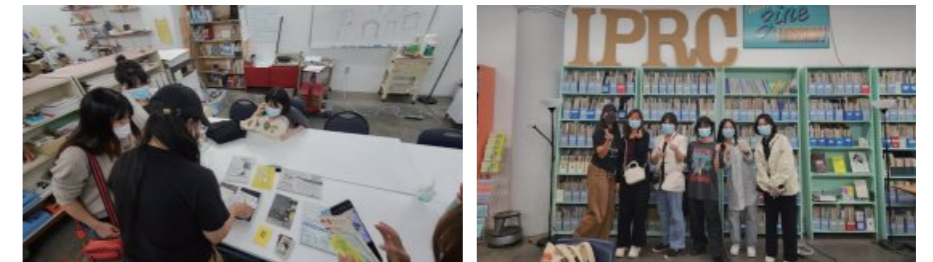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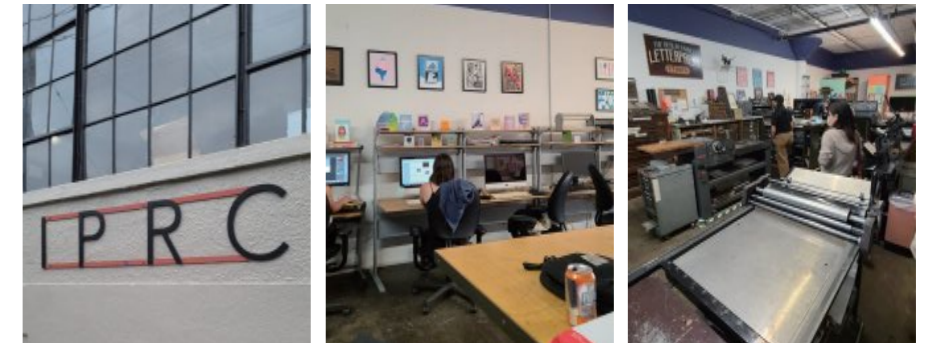
비가 와도 진행되는 알버타 스트리트의 last Thursday 행사. 한 어린이는 본인이 만든 소품을 직접 팔고 있었다.

2023년 9월 1일 금요일 10:00 ~ 18:00

- 장소 Washington Park-Redwood Observation Deck, 창작센터 IPRC 등
- 주요내용 IPRC(The Independent Publishing Resource Center) 공간투어

○ 지속가능한 창작센터 IPRC 투어

- IPRC는 독립출판을 위해 공간, 인쇄 도구 및 자원을 제공해주는 비영리 단체임. 또한 문학, 비주얼 아트의 창작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함.
- Basic/Studio 멤버십, Zine 만들기 교육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며, 4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인쇄 스튜디오를 관리하고 출판물 아카이브를 정리함.
- mac 작업이 가능한 컴퓨터 lab과 실크 스크린 스튜디오, Letterpress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음.



IPRC 스튜디오 및 Zine making 교육 공간



알버타 스트리트에 있던 한 갤러리. 작가들이 직접 본인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갤러리엔 사람이 바글바글했다.

## 인터뷰 내용 정리

- 포틀랜드, 한국의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시민참여 도시계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살펴보고자 했다.
-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거버넌스 구조”라는 큰 틀 아래 주민자치회, 시민협의체 용어를 혼용했다.
- 인터뷰 전문은 노션( <https://www.notion.so/jukpodam/1f9d9ecbc9324cab85e6020f67453e6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뷰이 (ABC, 가나다순)

포틀랜드	한국
- Darlene Urban Garrett (Executive Director Neighbors West Northwest_NWNW)	- 김기석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부장)
- Paul Leistner (Senior Fellow, Center for Public Service, Portland State University)	- 김정욱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Stanley Penkin (President of Pearl District Neighborhood Association)	- 신상현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Vadim Mozyrsky (Representative of Goose Hollow district)	- 이명신 (췌이스 대표)
	- 정성신 (스튜디오 마을 대표)

### Q. 시민협의체란 무엇일까요? 주민자치와의 다른 점은?

“시민협의체는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시민위원회, 시민회, 민회 등 다른 듯 보여도 결국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시민협의체는 ‘회의를 통한 협의’, ‘토론을 통한 담론 형성’ 등을 기대하며 시민을 비롯한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보자고 하는 주민참여기구입니다. 그렇기에 소수의 참여인원, 임기 등을 갖고 있는 행정 기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문화도시를 통해 지향하는 시민협의체(시민위원회)는 누구나 원할 때 참여하여 활동하고, 역할을 다하면 언제든 나갈 수도 있는 열린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런 지향의 핵심은 ‘시민’을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입장과 같습니다.” - 김기석

▶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거버넌스로,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된 목적. 시민협의체는 누구나 원할 때 활동하고 언제든 나갈 수도 있는 열린 구조인 반면, 주민자치회는 소수의 참여인원과 임기를 갖고 있는 행정 기구로의 성격을 띠다.

### Q. 시민협의체(주민자치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부천에서의 맨 처음의 시작은 봉사였어요. 어머니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부천시에서 아마 처음으로 학교 안에 학부모를 위한 평생교육원을 만드셨을 거예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강사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았어서, “와서 봉사 좀 해” 이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 신상현

“우리 동네에 필요하지만, 또 다른 동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싶어서요. 저희는 홈리스, 범죄, 생활가능성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동네를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 그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 Vadim Mozyrsky

“주변 시민협의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영향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이명신

“저는 평생을 공동체, 동네 활동을 해오면서 살았거든요. 뉴욕에 살 때도 제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족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 Stanley Penkin

▶ 포틀랜드아들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에서 시민참여 활동을 시작한 반면, 한국인들은 가족, 지인 등의 영향을 받아 시민참여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 Q. 시민협의체(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업체, 문화예술 관련 업종 종사자, 마을 활동을 좋아하시는 개인과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수원의 참여 나이대는 중장년 이상의 분들이 많으시고 참여하는 청년들도 직장인보다는 자신의 팀원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활동합니다. 취업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 생업을 책임져야 하는 자영업,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직장인, 자녀의 나이가 어리거나 육아를 도맡아 하는 주부, 문서 쓰기를 잘 못 하는 중장년, 시니어 분들이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 이명신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한... 나이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면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은 해야 하는 일들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직장, 가족, 그리고 다른 약속들이 있는 사람들이 밤낮에서 시간을 내서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 Vadim Mozyrsky

“제 생각에 주민자치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저처럼 은퇴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거나 가족을 양성하는 사람들보다 시간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다양성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 Stanley Penkin

“무언가를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여자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알리고 나누는, 일상에서도 느껴지면 너무 좋잖아요.” - 정성신

“마을에 대한 애정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육의 내용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도 있군요’ 배우는 거죠. 거기서 10명 중에 1명만 남아도 큰 수확이에요. 마을의 애정을 담은 사람을 끌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 신상현

▶ 한국과 포틀랜드 모두 중장년 이상이 참여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시민참여 활동엔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직장인,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 등은 참여가 어렵다고 했다. 마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거나 함께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 Q. 새로운 참여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홍보는) 어려워요.. 1:1 네트워킹,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공동체와 협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소식지, 이메일 뉴스레터가 2주에 한번씩 나가고요. 또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임원이 소셜미디어를 관리하고 있어요.” - Stanley Penkin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재미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할 때... 저희가 저희 옆에 있는 경기장과 협력을 하고 있고, 동의한 내용 중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저희 주민들을 위해 피크닉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핫도그랑 햄버거랑 맥주랑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으러 와요.

저희가 (사업체에) 무료 홍보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해요. 사업체들도 저희 주민자치회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사업체 연합, 종교 단체, 콘도 주민 협회 등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콘도 협회에 전단지를 붙여두고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저희 회의에 와요.” - Vadim Mozyrsky

“소셜미디어도 사용하고, 사람들의 집에 전단지를 배달하기도 합니다.” - Darlene Urban Garrett

“사업에 따라 좀 다른데요. 마을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씩 손 붙잡고 오게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는 또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갑자기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레벨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해요. 혼자 와서 사업을 주민 그런 동아리 사업을 지원한다거나 이럴 때 혼자 와서 들으면 안 돼요. 옆에 총무가 됐든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됐든 두 분씩 같이 오세요. 이런 분위기도 봐야 되고 대표로 갔을 때 어떤 부담감을 갖고 이 사람이 가는지 이런 걸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자가 가서 ‘나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거는 그 사람들은 참여 안 했기 때문에 호응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갔더니 ‘와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 이 한마디 투입세가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간접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활동할 파트너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의견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 신상현

▶ 포틀랜드 NA에서도 ‘홍보는 어렵다’고 했다. 웹사이트, 소셜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재밌는 행사(피크닉 등)를 하거나, 주민자치회에 가입한 사업체에 무료 홍보 기회를 제공해준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사람들의 집에 전단지를 발송하기도 한다. Stanley는 임원급의 젊은 인사를 유입시키기 위해 1:1 네트워킹을 한다고 했고, 신상현은 참여자의 지인을 한 명씩 데려오라고도 했다.

### Q. 기억에 남거나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홈리스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연결해 주려 하죠. 저희는 사람들을 컴퓨터에 연결해주고 정신건강 서비스, 마약 중독 서비스, 주거 서비스 등과 연결해 줄 수 있는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길거리 홈리스 인구가 홀로 버티지 않아도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이 동네를 흥미롭고 살기에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활동들도 하지만, 또 이 지역에서 인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시 정부와 이야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동네에 사는 개인들은 시장에게 직통전화를 걸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나 대변인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 Vadim Mozyrsky

“코로나 도중에 저희는 많은 지역 사업체들과 식당들을 잃었어요. 주민자치회 내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출범했는데, 그게 바로 신사업지원위원회라는 겁니다. 사업체를 지원하고, 이 공동체 내에서 사업체들을 복귀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의 사업체 방문을 늘리고,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다양한 사업체에서 행사를 여는 것을 홍보하고, 또 거기서 회의를 열어 사람들이 그 사업체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 등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산책, 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을 모아서 특정 사업체에 모이게 하고(네트워킹),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목요일 6시쯤 다같이 거리를 걷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공동체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같이 모여서 산책을 하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예를 들어 맥주를 마신다든지, 간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 사업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거리에 사람이 많을수록 안전해지니까요.” - Stanley Penkin

▶ 포틀랜드에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었다. 홈리스 등 지역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 정부와 직접 소통하거나, ‘사람이 많을수록 거리는 안전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동네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사업지원위원회를 꾸린 주민자치회도 있었다.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시민주도 R&D사업 대화모임 씨티메이커스>입니다. 모임에서 모더레이터로서 대화를 진행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화모임에서 이끌어 낸 의제를 실현시키는 프로젝트는 실행하지 못했지만, 이 경험과 <시민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거치면서 ‘기획’이라는 것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습과 함께 <동행공간> 사업을 진행하며 ‘호명’으로 다문화, 이주민 네트워킹을 하고 함께 자리를 만드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문클럽>에서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봄과 배려’라는 가치를 발현하는 프로젝트인 <인문클럽 5색프로젝트>에서 ‘시민감독’을 하면서 기획자로서 ‘기획’과 ‘실행’을 경험하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돌던 생각을 대화로 밖으로 꺼내어 몸으로 실천을 하고, 그것이 상상 이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획’의 세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동적인 ‘참여자’에서 시작하여 ‘기획자’로의 과정이 된 소중한 경험입니다.” - 이명신

“시민문화거점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인 <삼세관>을 참여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클래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각자의 감성을 서로 나눌 수 있어 기억에 남습니다.” - 정성신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모니터링단 활동이 기억에 남아요. 지자체와 결합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마을의 의제를 개발하고, 개발한 의제를 일부 사업화시켰어요. 부천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을 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을 때라 이게 뭔지 먼저 알려야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했죠.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20~30개 이상의 여성단체, 각각의 여성단체가 회원으로 들어와있는 단체였어요. 여성주간 같은 때 모여서 행사도 하고 자기들의 활동도 알리곤 했어요. 우선 ‘정말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부천에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 마을을 알아보자’ 였어요. 그 마을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여성 친화라는 걸 하다 보니 도로도 유모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도 보니까 휠체어가 갈 수가 없어. 다 계단이야. 공원은 너무 다 밀폐돼 있어서 누가 들어가면 안 보여. 그렇다면 이것 개선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지? 그럼 지금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이지?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사는 그 주민들을 주로 섭외를 한 거예요. 우리가 운영진이 있지만 각각 세부 마을 단체들이 있고 그 마을 단체들이 각각 마을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한 거죠. ‘우리 이런 걸 하려고 해. 자, 뜻이 있는 분들 모여주세요.’ 그래서 모아놓고 우리가 교육을 시켰죠.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해. 만약에 참여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고 그걸 언제 언제까지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며 찍었던 사진을 전시도 하고, 36개의 동별로 발표할 사람을 뽑아 부천시 공무원 앞에서 발표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제안했죠.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이 반영되어 있더라구요.” - 신상현

#### Q. 본인의 주민자치회 활동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좋은 질문인 게, 저희가 지금 포틀랜드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시스템은 포틀랜드에서 아주 오래 전에 시작됐어요. 아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자치회 시스템일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생긴 이유는 사람들이 당시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곧 정부에게 주민들의 필요에 대해 소통하는 방법으로 성장했죠. 한 8년 전, 정치인들 중에서 주민사회에서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스템을 없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반발이 컸고, 저희를 제거하려고 했던 정치인은 선거에서 졌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 시정, 지방 정부, 주 정부에게 저희 요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4개의 다른 주민자치회 연합 대표들과 만날 거예요.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이런 니즈들을 어떻게 더 잘 충족시키고 어떻게 더 잘 협력할 수 있을까 논의하려 해요. 왜냐하면 공공안전이나 생활가능성, 도시 내에서 사람들이 잘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길거리 축제 같은 활동으로 동네를 더 재미있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게 해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희는 함께 일하는 법을 알아야 해요 - 왜냐하면 따르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주 후에 미국 상원의원에서 오래군을 대표하고 있는 와이든 의원과 만날 거예요. 상원의원과, 주지사 대변인, 그리고 메트로라고 해서 3개의 카운티 대변인들이 모여서 올 것이고요, 또 선출직 공무원과 포틀랜드 카운티 의회장, 그리고 몬테노마 카운티 의장과 포틀랜드 시장도 와서 저희 니즈가 뭔지 논의해보고, 그들은 뭘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주지사님이 도움을 주시려는 겁니다. 저희는 메트로와 카운티와 도시를 한 곳에 모아준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하고 있어요. 동시에 저희는 6개의 주민자치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질문들의 질문과 우려들을 알리는 플랫폼을 제공할 거예요. 또 우리의 니즈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협력해서 이런 니즈들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릴 겁니다. 그건 제가 지난 9년간 이 지역에서 살면서 보지 못한 활동이고, 지난 3년간은 확실히 없었어요. 점진적으로 발전한 거죠.” - Vadim Mozyrsky

▶ 포틀랜드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여론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요즘은 주민자치회들끼리 연합하여 행정에 의견을 전달한다고 한다.

#### Q. 개인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핵심 요소는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람들은 힘을 부여받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인은 무력하다고 느껴요.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보고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인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했다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건 완전한 변신이나 다름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아도 일해요. 그들은 그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줬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해요.” - Vadim Mozyrsky

“마을 주민들은 내가 모니터링에 참여했고,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결과가 나왔고, 개선이 필요한 마을 의제를 직접 발굴해냈잖아요. 그 의제가 시 정책에 녹아들어 반영이 된 걸 보면 성취감을 느끼고, 또 다른 의제를 발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거죠.” - 신상현

“우리(NWNW)는 NA에 책임 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축제에서 다쳤을 때를 대비한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침을 통해 동네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를 더욱 실행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Darlene Urban Garrett

▶ 포틀랜드, 한국 모두 본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변화를 일으킨 경험을 느낄 때 참여 동기가 생긴다고 보았다. 한편 보험을 들기 어려운 미국의 특성상,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참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Q. 회의를 진행하는 기술이 있다면?

“우리의 기본 규칙 중 하나는 한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역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을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그룹) 안에 누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Darlene Urban Garrett

“우리가 스스로 실천해야 할 일들은 뭘까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주민이 할 수 있는 일과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시켜야 해요. 퍼실리테이터를 이용한다거나 포스트잇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눈으로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다 알아요. 모른다 하더라도, 많이 들어오는 항의성 민원이나 개인 이득을 위한 사업을 제안할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고 고민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서 얘기해 봤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주던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의외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토론 문화인 것 같아요.” - 신상현

▶ 포틀랜드, 한국 모두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그룹)의 역할 관계를 파악한 후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Q. 갈등을 중재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도 하세요. 실제로 저는 커뮤니티 개발 협회에 가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곤 합니다. 그곳은 커뮤니티 구축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좀 더 학문적인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고 커뮤니티가 계획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개발하여 자신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가 역량을 구축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웃이 그 지역 사회를 돌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 Darlene Urban Garrett

**Q.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주민자치회는 일년에 쓸 수 있는 자금이 1만 달러가 안되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주민자치회도 많아요. 예산 흐름이 안정적인 곳들은 몇 곳밖에 없죠. 예를 들어 펄 주민자치회의 경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사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 축제를 열 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 구의 경우... 특정 상업 단체들이 상업지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도보를 수리하고, 조명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방문객들과 주민들에게 더 예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단체들로부터 배우고 있어요. 저는 올드타운 주민자치회나 펄 주민자치회 회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여는 거리축제를 보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있어요.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그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가? 어떤 단체들이 그런 지원금을 제공할 것인가?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주민자치회 연합에서는 지역 사업체들로부터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거리 축제의 경우 BMW에서 지원금을 제공했고, KGW라는 지역 방송국 중 한 곳에서도 지원금을 줬어요. 이건 매년 지속할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죠.” - Vadim Mozysky

“도시에서 지역연합에 예산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연합에서 각 주민자치회에 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연합이 각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배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고, 도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주는 자금은 아주 적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모금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연방 정부에 501c(3) 코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는 돈은 세금 공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세금을 보고해야 하죠. 펄 지구 13번가에서 매년 파티를 합니다. 거리를 폐쇄하고 음악 이랑 음식이랑 모금활동을 합니다. 그게 저희 주 모금활동이고 저희가 모금을 하는 주 방식이에요. 그리고 매년 이 파티에 500여명에서 1000명 정도가 참석해요.” - Stanley Penkin

▶ 포틀랜드 주민자치회는 지역연합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만, 극히 소액이기에 별도 모금활동을 한다. 펄 지구의 경우 13번가에서 매년 모금 파티를 연다. 구스 할로우 지구는 지역 사업체로부터 기부를 받는다.

“저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3월쯤에 저는 “우리는 이것들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시에 제출합니다. 또한 모든 회의의 로그인 시트를 보관해야 합니다. 저희는(NWNW) 다른 모든 지역보다 적은 금액을 받지만 약 30만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 Darlene Urban Garrett

“시에서는 총 200만 달러가 나오며, 7개로 나뉘어 모든 지역연합에 지급됩니다. 그 돈으로 지역연합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보험, 교육, 웹사이트, 회원 목록 등의 지원서비스를 주민자치회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면 거의 돈이 남지 않죠. 그말인 즉슨, 주민자치회 활동가들은 모두 무급 자원봉사자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금 행사를 합니다.” - Paul Leistner

▶ 포틀랜드 지역연합은 매년 계획을 제출하고, 모든 회의록을 보관하는 반대급부로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연합 직원들 급여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돈이 거의 남지 않는다.

**Q. 재단에서 시민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적·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누구나 원하면 시민협의체(시민위원회)에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인적 자원의 축적 되기까지는 매우 체계가 없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자들도 많지 않은 고관여 시민, 예술사 등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한정적으로 시작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한 시민들도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은 안되어 가는 기간이 아니라 되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숙성시켜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의체는 이 이름이 말해주듯 제한적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이기도 하구요.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은 아무래도 행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시민협의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되더라도 정책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툰 다운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역시 확대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권한을 한순간에 이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 간다는 전제를 둔다면 ‘과정의 중요함’이 필요합니다.” - 김기석

그런데 확실히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이런 시민협의체, 시민활동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정권에 따른 편차는 덜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를 나눠 완전히 양극으로 정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한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시민 주도로 뭔가를 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개척된 나라이고 그렇게 3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 주도, 그 다음 중앙집권을 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서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형태를 '거버먼트 드리븐'이라고 부릅니다. - 김정욱

**Q. 시민협의체/주민자치회 등 시민참여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향식은 좋고, 하향식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 부분에 계속 말씀 드린 것처럼 시민을 비롯한 참여 주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먼저 고민해 본다면 그간의 하향식 접근 방식을 개선해서 어떤 부분은 상향식으로, 또 어떤 부분은 미들업다운(Middle up down)프로세스가 좋을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방식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식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결국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더불어 협의체라는 거버넌스 구조는 만드는 것 만큼이나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는 되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 비전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성원 상호간의 존중을 기반으로 한 배움이 가능하다면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김기석

“주민자치회는 포틀랜드의 작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몇가지 목소리 중 하나예요. 사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각자 니즈도 다르겠죠. 그래서 포틀랜드 북부는 포틀랜드 남부와는 다를 수 있고, 니즈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네에 기차 선로나 송유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환경을 더 신경쓸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원, 어떤 사람들은 주택에 대해 더 신경써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서는 주거비가 더 비싸니까요. 그래서 다들 자기 니즈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시 전체의 니즈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면 연합을 형성하고 풀뿌리로부터 올라 가야 해요.” - Vadim Mozyrsky

**III. 연수효과 및 현업활용계획**

**윤소정**

문화도시  
공모사업  
기획 및 운영

**포틀랜드를 선택한 이유**

부천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2019년 12월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시민협의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기존 문화재단 사업(전문예술지원, 지역축제기획 등)과 달리,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민주주의' 개념을 기반으로 시민이 단순한 문화예술의 향유라는 관점을 넘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음.

시민협의체 사업은 문화도시의 핵심 사업으로 시민위원 멤버십을 기반으로 시민이 직접 도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해결하여 도시 고유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비전이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제로 구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음.

타지역 문화도시 실무자들도 지역이 처한 현실과 환경은 달라도 관 주도의 시민협의체 운영에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는 실무자 개인이나 기관의 역량 편차가 아닌 최소 시 단위의 구조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단초를 실무자 그룹과 미국 포틀랜드의 시민협의체(NA)에서 찾아보고자 연수를 계획하였음.

**실무자로서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

**① 장기적 비전 공유**

행정과 민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면, 장기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융통성을 발휘해야 함. 문화도시 조성사업 5년을 넘어 시민과 함께 어떤 문화도시를 그리고자 하는지 문화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 마련이 필요함.

**② 운영 기간 확보**

시민협의체 사업은 단기간 내 실현될 수 없는 사업임. 행정기간(문화도시 5년, 사업 1년)을 넘어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운영회를 조직하여 회비를 받고 운영할 수 있음. 기존 사업/행정 구조를 탈피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운영 방식을 고민할 시점임

**③ 상호 협력망 구축**

각 지역에서 시민협의체는 각자도생하고 있음. 이를 연합하는 광역 단위 역할도 필요함. 각 지역 시민협의체 혹은 담당자가 모여 작은 포럼을 열고 아젠다를 도출해볼 수도 있음. 부천의 경우 분야별 좋은 협력구조를 가지고 있음. 여성, 청소년, 복지, 일자리 등.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협의체, 시민단체, 관련 부처와 연대하고 협력을 모색하여 제한적인 자원을 활용해야 함. 시민협의체에서 발굴한 의제 관련 타기관 부서를 연결해 주는 등.(킨막이 행정X).

**인터뷰를 통해 깨달은 점?**

인터뷰 표본이 다양하여 관점을 비교하니 사업을 객관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갖게 됨. 이해관계자 미팅, 정확한 데이터 수집, 정책 수립의 배경, 현장에서의 효과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 기간 뿐만 아니라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박정윤**

뉴미디어  
홍보

- 각기 다른 지역, 각기 다른 업무를 가진 문화재단 직원들과 함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지역/업무에 따라 중요하게 보는 점이 달랐음. 평소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예산, 시민협의회 실무자의 관점에서 이번 주제를 탐구할 수 있어 유익했음.
- 시민참여 활동은 본인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고관여 활동’으로, 포틀랜드에서도 홍보가 쉽지 않았음. 소셜미디어, 소식지,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다는 점은 비슷했음. 고관여 참여자를 키우기 위해 ‘네트워킹’을 하는 것은 한국, 포틀랜드 모두 비슷했음.
- 반면 파티를 개최하여 모금 활동을 벌인다면, 사업체에 접촉해 기부금을 받는 형식은 신선했음.

**오유림**

예산,  
신규시책  
발굴 및 기획

- 미국 서부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힙스터들의 도시, 리버럴, 예술가의 도시’, ‘로컬 크리에이터 도시’ 등이 대부분이었음. 연수기간 동안 내가 본 포틀랜드는 ‘안전하고 안정된 이웃을 만드는 것에 진심인 도시’, ‘자연과 교감하는 자연친화적 도시’, ‘강력한 지역경제 기반의 도시’ ‘예술과 문화의 다양성이 폭넓게 수용되는 도시’로 새롭게 보임.
- 포틀랜드 시의 경우, 다양한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소통과 협력채널 구축, 성공적 도시 정책 및 도시개발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Best Practice로서의 사례를 제공함. 연방정부-주정부-시정부로 이어지는 정책 수립 및 반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어 정책과 현장의 연결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시정부의 역할이 정책기획뿐만 아니라 도시 및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 지원과 대상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실시하여, 보다 실생활과 잘 연결되어 있음.
- 시민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둔 협의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문화재단 직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단순히 일차적인 지원금을 단체에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내 사회적 리더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 이를 위해 지역의 전문인력 Pool을 구성하고, 사회적 지원체계 마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의 역할을 재단에서 맡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포틀랜드 내 95개의 NA 조직과 이들의 연합체인 Coalition의 운영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선결 조건임을 재확인함. 다만, 한국에서처럼 단체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기금 조성 등으로 독립적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 포틀랜드 시민 자치활동과 한국의 시민협의회 활동은 차별적인 동시에 유사점도 있었음. 시민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공적 재원의 지원이 있으며(구체적 지원방식은 한국과 미국이 상이), 연간 단위로 예산이 배정되므로 짧게는 1개월 ~ 길게는 3개월 정도는 예산이 교부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 정부나 시로부터의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산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한국의 현실과 유사함.
- 포틀랜드라는 도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접한 시민 활동에 대한 정책과 자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국내에 당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할 수 없으나, 현재 하고 있는 현업에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운영 시스템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업무 구조를 설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됨. 지자체 출연기관이라 재정적 독립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역문화재단에서 국고 보조금이나 지자체 출연금으로 책정하지 않고도 연속성을 지닌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느낌. 단순히, 영상이나 저작물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도시의 표면이 아닌 실제의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귀중한 기회였음.

**정수현**

청년협업  
워킹그룹  
양성 및 조직

- 시민협의회 담당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담당자들이 고민하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음. ‘집행과 정산 문제로 인한 시민협의회와 행정 사이의 갈등’과 ‘시민의 사업 참여율 저조’. 내부적으로 팀원들과 고민하던 문제인 줄 알았으나, 포틀랜드에서 만난 각 도시의 시민협의회 담당자들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동질감을 느꼈음. 포틀랜드에서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 지 비교하기 위해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게 됨.
- 포틀랜드에서는 예산 운용 및 참여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우리와 비슷했음. 첫째로는 우리나라는 1년이라는 회계연도 안에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스템이 민관사이를 갈등케한다는 예산 관련 문제점이었음. 포틀랜드의 경우 회계연도는 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기간을 길게 봄. 그래서 결과를 위한 행사가 아닌 사람을 위한 행사라는 목적을 확실히 갖고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았음. 관련 인터뷰 이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포틀랜드는 천천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행정에서도 사업 목적을 확실히 주지하기 위해 고려해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음.
- 둘째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였음. 우리나라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도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시민협의회 사업 담당자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음. 그러나 포틀랜드에서는 지원금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자(volunteer)들이 많다는 것이었음.
- 생각보다 다른 점이 많다는 것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으나, 문화재단 직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음. 일차원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만 주를 두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의 기획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참여자들을 독려할 수 있을지,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가장 필요함.

**김예진**

문화도시  
거버넌스  
(시민협의회)  
및 청소년  
거버넌스 운영

- 이전 직장에서부터 지금도 시민협의회를 담당하고 관련하여 다양한 대외적인 네트워크에 참석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신규 참여자 유입률 저조’ 및 ‘관 주도의 행정적인 협치’라는 문제들이 있었음. 따라서 이번 연수를 통해 이 지점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길 기대함.
-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포틀랜드 NA의 운영방식에는 비슷한 점도 있었고, 배울 점도 있었음. 비슷한 점이라면 예산 부족이나 운용에 대한 문제들, 신규 유입을 위한 홍보의 어려움, 비교적 높은 나이대의 참여자 등임.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관과 민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역을 위해 활동하며, 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에게 주는 현실적인 대책들(보험 등)이 있기에 지속가능하고 지역 발전적인 협의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이 눈에 띈.
- 이렇게 포틀랜드 NA 소속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아하니 정부와 재단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음. 협의회 사업 운영 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똑같은 협의회 ‘참여자’로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더불어 일회성의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함. 또한 단순히 관에서 주도하는 행정적인 회의나 행사만을 개최하지 않고 시민들이 진심으로 지역을 즐기고 또 다른 참여자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봄.
- 연수 이전의 자료 수집 단계에서 충분히 사전 지식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또 다르게 다가왔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넘어 NA 운영의 현실 지점들을 듣고 연수동료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음.

## IV. 주요사진

### 연수사진



ADX MAKERSPACE 매니저 Blue에게 공간 설명을 듣고 있는 죽포담



PSU 이정희 교수님의 도움으로 Paul 교수님을 인터뷰하고 있는 죽포담



포틀랜드의 지역연합 NWNW의 임원 Darlene과 인터뷰하고 있는 죽포담



포틀랜드 주민자치회 구스 할로우 지구 임원인 Vadim과 인터뷰하고 있는 죽포담



포틀랜드 주민자치회 펄 지구 임원인 Stanley와 인터뷰 후 다같이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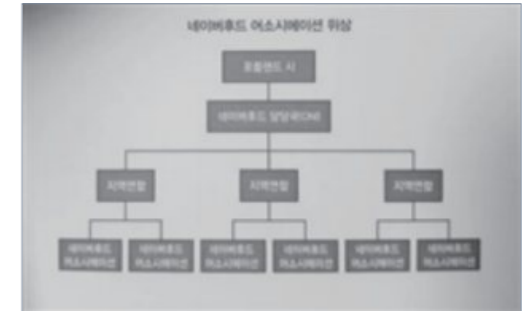
독립출판인을 위한 지원센터 IPRC 탐방

## V. 기타자료

### 동네 단위 주민자치조직NA 중심으로 시정 참여가 활성화된 포틀랜드



포틀랜드 7개의 지역연합



네이버후드 어소시에이션 위상

#### NA란?

- 시가 인정한 유일한 공식 근린 조직. 95개의 NA, 7개의 지역연합을 두고 있음.
- 개인단위 가입 가능, 회비 납부 필수.
- 명확한 지구의 경계선과 역할을 갖고 시에서 연간 약 3천~5천 달러의 활동예산과 각종 지원을 받음

#### 활동

- (지역의 마을 만들기 활동) 지역의 환경미화, 방법·방재활동, 주민 간 친목
- (주민참여 도시계획) 행정 의뢰사항에 대한 협동, 토지이용계획, NA 플랜 책정, 시 예산편성 참여, 역사적 건물의 보존 활동,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제공 제안

#### 역할

- 시정 체계의 일부로 시내 전역의 커뮤니티 성립의 바탕이 됨
-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 활동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시민활동단체와 시청의 각 부서 등 이해관계자를 이어줌

#### 의의

- 시에서 NA를 통해 시민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시민 스스로 각자의 근리지구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기고 그 결과, 시 조직 비용이 감축되는 효과 발생

1) 출처 : 아마자키 미츠히로, 『포틀랜드, 내 삶을 바꾸는 도시혁명』, 손여리 역, 도서출판 어젠다, 127p, 2017.



2023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

**2023**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연수결과보고서**